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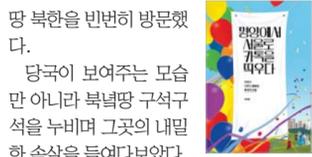
우리가 너무나 몰랐던 북녘사회의 변화와 그 속살

“평양에서 보낸 카톡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처음에는 장난으로 알고 믿지 않았다. 실제 상황을 깨달은 후에는 놀라서 어안이 병병해졌다. 내가 카톡 답답을 요청하자 그들 모두 간단한 답변을 날려주었다. 이로써 나는 평양 하늘 아래서 서울을 향해 마음껏 카톡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날릴 수 있었다. 반대로 서울에서 보내준 카톡 답답을 아무런 문제없이 평양에서 즉시 받을 수 있었다.”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다

최재영 지음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불투명해지면서 남북관계가 주춤거리고 있지만 예전과 비해 전향적으로 바뀐 것은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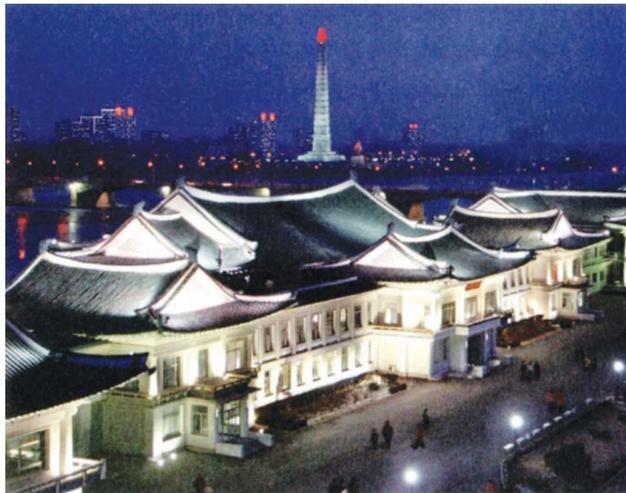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북한에 대해 알고 있을까. 장남 꼬끼리 만지듯 일부만 알고 있을지 모른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탓에 탈북자들마저 혼란스러울 정도라고 한다. 평양 시내에 자가용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교통정체가 일어난다. 영업용 택시는 북한 전역을 누비는 상대라고 한다.

미 소셜 무브먼트 그룹 NK Vision2020을 설립해 통일운동을 펼치고 있는 최재영 목사가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다'를 펴냈다. '우리가 너무나 몰랐던 북녘의 오늘'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에는 현재의 북한의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 있다.

재미동포인 저자는 지난 10년간 금단의 땅 북한을 빈번히 방문했다. 당국이 보여주는 모습만 아니라 북녘땅 구석구석을 누비며 그곳의 내밀한 속살을 들여다보았다. 북한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복합적인 시각이 투영돼 있다. 냉철한 기자의 눈빛, 의혹을 품은 검사의 매서운 눈초리, 자비한 목자의 그윽한 시선이 그것이다.

저자에게는 '분단 이후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분단 이후 최초 남과 북의 국립묘지를 탐방한 사람', '분단 이후 현존하는 북측 종교시설을 가장 많이 방문한 사람' 등에서 보듯 그는 통일을 향한 정경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책에는 평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서울로 카톡을 날리고 보이스톡 통화를 했던 일화가 담겨 있다. 우여곡절 끝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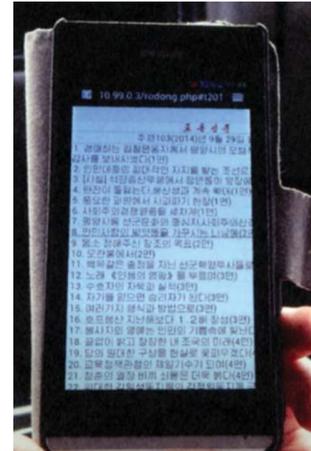
옥류관 조영과 주체탑 조명이 조화를 이룬 평양시 전경.

평양 식당은 메뉴판 대신 태블릿으로 주문받아

영업용 택시, 승용차의 두배...요금은 주로 달러 지급

현재 북한의 다양한 모습·보이스톡 통화 일화 담겨

루어졌지만, 전파의 장벽을 깨고 남과 북을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저자에 따르면 현재 북에는 600만 대가



이북 주민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아리랑. 스마트폰으로 '로동신문'의 기사를 검색하고 있다.

속도도 빨라 평양의 무선 와이파이에는 전혀 끊김이 없었다는 것이다. 남북 사회통합이 사이버 교류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수긍이 된다.

북한의 음식 문화에 대한 부분도 흥미롭다. 현대화 고급화된 데다 주문의 형식도 바뀌고 있다. 평양의 어느 식당은 메뉴판 책자와 주문판 대신 최신 태블릿으로 주문을 받고, 손님의 음식 취향도 별도로 입력

한다. 책에는 평양의 우표 애호가들의 수집 열정도 담겨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6000여종의 다양한 우표가 발행됐다. '조선우표 박물관'에는 1884년 '문위우표'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우표들이 전시돼 있다. 저자는 북한은 우표를 통신에만 이용하는 증권으로만 보지 않고 전통, 생활상과 연계해 보고 있다고 설명한다.

교통수단은 어떻게. 평양에는 영업용 택시가 승용차의 두 배나 이를 만큼 택시가 많다고 한다. 요금은 내국인이라도 주로 달러로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중국 위안화로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돈보다는 달러나 위안화가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택시 내부 조수석 앞에는 운전사의 사진과 이름, 휴대전화가 기재돼 있었다... 뒷좌석 옆유리에는 전자결제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택시 요금을 나래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표시였다.”

저자는 분단의 벽을 허물기 위한 과정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징적인 퍼포먼스가 되는 것을 경계한다. “우리 앞에는 이념의 장벽, 종교의 장벽, 전파의 장벽, 휴전선 철조망 등 여러 장벽이 놓여 있다. 나의 글이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의 방향을 고민하는 작은 증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가가날·1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바림 우중영 지음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영원한 것은 저 생명나무의 녹색뿐이다” 파우스트의 말처럼 사람은 나무에 기대어 사는 존재다. 나무가 녹색 풍요로 지구를 덮었기에 인류는 나무와 더불어 살 수 있었다.

식물과 인간의 삶은 토대가 같다. 지구에 사는 생명체 일원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식물과 나무, 정원 등은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다룬 책들이 주목을 받는 것은 다행이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개으른 산행”, “나무야, 나무야 왜 슬프니?”의 저자 우중영 씨가 '바림'을 펴냈다. '바림'은 그림을 그리며 물을 바르고 마르기를 반복하며 먹인 붓을 대어, 번지면서 흐릿하고 깊이 있는 색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저자는 일상에서 깨우친 것들을 차곡차곡 적어두었다가 비밀처럼 하듯 부드럽게 세상을 초록빛으로 물들이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

책에는 10대 시절부터 나무와 함께 살면서 얻은 산 경행과 식물성 정서, 나무를 향한 연민, 남다른 호기심과 열정에서 비롯된 방대한 독서가 빚어낸 지식과 지혜가 가득하다.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인간과 가까이 살아온 나무를 네 유형으로 나누고 각 나무가 보낸 편지를 해독하고 해설한다. 2부와 3부는 각각 인간의 능력과 감각을 압도하는 나무의 능력과 미덕을 찬양하며, 나무가 살아가는 방식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4부는 숲과 교감하면서 얻은 지혜로 가득한 글이, 5부는 나무의사로서의 나무의 애환을 대변하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자연과 생태·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이 드는 맛 존 릴랜드 지음, 최인하 옮김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많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어난 세대로, 고령층으로 한데 묶을 수 없을 정도로 수가 많다. 그들을 '초고령층'이라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는 노년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있을까.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한 노후가 보장될까?

뉴욕 타임스 기자인 존 릴랜드가 펴낸 '나이 드는 맛'은 노년의 삶을 행복한 시간으로 채우려면 어떤 가치관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개인적, 사회적 관점에서 제시한다. 저자는 85세 이상의 노인 여섯 명의 삶을 지난 1년에 걸쳐 들여다보며 오래 산다는 것의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책은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와 '피플'지 선정 베스트 뉴 북에 선정될 만큼 인기를 모았다.

저자가 1년간 초고령자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배웠던 메시지는 분명하다. 바로 행복해지고 싶으면 노인처럼 살면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지나는 시간 동안 쌓인 내공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눈에 띄는 점 가운데 하나는 양로원이나 호스피스에 노인들 중 더 현명하다고 평가된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현명한 사람은 더 현실적인 기대를 하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덜 실망한다. 그들은 쓸 수 없는 돈에 욕심을 내거나 이를 수 없는 성적 욕망을 품지 않는다.

저자가 만난 노인 중 한명인 프레드의 말처럼 '행복은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더 나은 평가를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꼭 붙잡아. 우리에게 허튼 꿈을 꿀 시간이 없으니까.”

〈웅진 지식하우스·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헤민 지음

“가슴은 고요함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을 선물하세요.”

지혜와 통찰, 여유와 휴식을 함께 주는 글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헤민 스님의 신작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 출간됐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에 이은 '헤민 스님 행복지침서' 3부작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이번 책에서 '우리 안에 있는 고요함'과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예전에는 잘 몰랐던 것들이 밝아지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가. 내 안의 소망, 진정 꿈꾸는 삶의 방향, 추구하고 싶은 삶의 가치, 오랫동안 눌러놓았던 감정이나 기억까지 되살아나 그것들로부터의 치유가 가능하다고 전한다.

6장으로 구성된 책은 지혜와 평온으로 가는 길을 안내한다. 1장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은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귀 기울이라고 말한다. 2장 '가족이라 부르는 선물'은 스님의 속가 어머니, 할머니, 어린시절 기억 등을 통해 가족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인지 알려준다.

3장 '삶을 감상하는 법'에서는 사회가 만들어놓은 획일화된 행복과 성공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도록 이끌고 4장 '우정의 여러 가지'에서는 현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워하는 관계의 문제를 파고든다.

5장 '외로움에 관한 생각'에서는 현대인들의 고질병이 된 외로움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6장 '마음을 닦는다는 것'에서는 독자들이 고요 속에서 깨어 있는 투명한 침묵을 만나기를, 마음의 본성의 찾기를 바라는 저자의 바람을 담았다.

〈수오서재·1만5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2018-2019 **신양파크호텔** **겨울축제**

기간: 2018. 12. 1(토) ▶ 2019. 2. 28(목)

축제 1 **객실 겨울 패키지**

객실 리모델링 기념 **60% DC**

축제 2 **1층 레스토랑 "티파니" 감사축제**

커피 3,000원
돈까스 코스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50,000원

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

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